

#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10. 1



#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10. 1

---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교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최수영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전반적 특징 .....	1
II. 2009년도 평가 .....	5
1. 정치 .....	5
2. 경제 .....	5
3. 사회·문화 .....	6
4. 군사 .....	6
5. 대남 .....	7
6. 대외 .....	7
III. 2010년도 과업 .....	8
1. 정치 .....	8
2. 경제 .....	9
3. 사회·문화 .....	11
4. 군사 .....	11
5. 대남 .....	12
6. 대외 .....	13
IV. 2010년도 부문별 전망 .....	15
1. 정치 .....	15
2. 경제 .....	15
3. 사회·문화 .....	17

4. 군사 .....	17
5. 대남 .....	18
6. 대외 .....	19
V. 정책적 합의 .....	21
<부록> 2010년 신년 공동사설 .....	24

북한은 2010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

## I. 전반적 특징

-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 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
  - 그동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계속 강조되었던 ‘선군정치’, ‘선군사상’ 등의 군사 우선주의가 후퇴하고 인민생활 문제가 크게 강조되었음.
  - 이는 선군정치의 토대 위에서 경제를 우선시하는 ‘선군경제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형을 복구·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 군중동원, 속도전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 북한이 이례적으로 경공업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경공업의 증산을 통해 생필품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부 사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년 말에 시행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시장활동을 억제하고 공식경제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공식부문에서 경공업품의 생산과 공급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시장활동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올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중동원식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국가의 공식경제부문을 강화하고자 할 것임.
- 여기에 ‘자력갱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대외시장 확대’ 및 ‘대외무역활동 적극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내부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군사 및 과학 기술에서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
    -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 또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CNC(컴퓨터수치제어)기술이 세계첨단수준을 돌파했다고 주장
    - 여기에 더하여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도 특출한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강조

- 대남 및 대미정책에서는 유화공세로 전환한 지난 해 8월 이후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확대 추진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 강화
  - 북한은 2007년 10월 수준으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됨.
  
-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은 그 동안 자신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담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한 바, 2010년에는 남한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대남 적극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카드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교착 책임을 남한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자 하는 통일전선전술의 틀이 유지되고 있음.
  
- 핵문제와 관련 ‘근본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종식’,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바, 향후 북한은 4자 평화협정을 적극화할 가능성이 높음.
  
- 군사적 구호가 지극히 자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선군정치 구호가 극히 자제되었으며,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단지 ‘선군의 총대’, ‘선군혁명 역량’ 등 의례적인 어휘만 구사
  - 여타 부문에 있어서도 군대가 핵심이며 선차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한적으로만 사용

- “경사스러운 10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를 장엄한 축포성”이라는 표현에서 올해 10월 당창건 65돌을 맞아 의미있는 공식행사나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북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계속해온 통치업적의 과도한 선전, 근거없는 낙관주의, 허구에 가까운 미래 비전의 제시 등을 동원함으로써 체제의 결집을 유도하고자 함.

## Ⅱ. 2009년도 평가

### 1. 정치

- 2009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로 규정하면서 김정일의 ‘초강도의 강행군’의 성과로 찬양함.
- ‘광명성 2호’의 발사와 제2차 핵시험을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으로 자축함.

### 2. 경제

- 북한은 2009년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통해서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
  - 특히 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공업부문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점을 지적함.
  -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주장
- 주요 경제성과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희천속도>가 창조되고, 념원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 건설 등이 제시됨.

### 3. 사회·문화

-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예술, 교육, 체육 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함.
  - 예술 부문에서는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부문의 명작 창작 및 ‘대고조 시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 창조
  - 교육 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등 교육기관 개축·현대화
  - 체육 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성과 창출

### 4. 군사

- 군사관련 언급은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 제2차 지하 핵 실험 성공 등이 간략히 언급됨.
- 작년의 경우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한 인민군대로 평가
  -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장거리 로켓(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대한 인민군대의 역할을 강조
- 혁명적 대고조 사업을 위해서 인민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됨.

## 5. 대남

- 2009년 공동사설과 같은 비관적 논조 보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함.
- 또한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의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대남 유화자세를 취한 자신의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남북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자찬함.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이를 압도하여 승리하여야 함을 강조함.

## 6. 대외

- 대외부문에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미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
  - 한반도의 근본 문제가 “미·북간의 적대관계 청산”임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체제 문제가 핵문제 해결의 핵심의제임을 제시함.
  -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평화체제)” 없이 핵포기는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함.

### Ⅲ. 2010년도 과업

#### 1. 정치

- 2010년이 창당과 해방의 65주년이 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함.
  -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 절대시
  - 평양시의 10만세대 주택건설
  - 도시와 농촌들의 현대화
  
- 정신력과 대중의 노력 동원에 입각한 과업 달성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 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과업으로 제시함.
  - “강성대국건설 위업은 정신력을 기본무기로 하여 전진하는 불패의 위업”이며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사상의 힘, 정신의 위력을 틀어쥐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
  
- 당 강화와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를 촉구함.
  - 당사업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의도를 구현하는 데 집중
  -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 강화
  - 당원들의 혁명화와 리더십 제고

## 2. 경제

-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 증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강조한 점은 예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동안 ‘인민생활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공동사설 제목에서 강조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경공업 생산 증가는 화폐개혁 이후 시장활동을 억제하고 공식경제부분을 정상화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인민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일”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여기에 더하여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심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당국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 및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적 재원 투입을 증가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생필품 등의 수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함.
  
- 4대선행부문에 대해서는 주체철 생산능력 제고(금속부문), 발전소 건설(전력공업부문), 석탄 증산(석탄공업부문) 및 철도의 현대화(철도운수부문) 등의 실현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경공업과 농업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 있음을 확고히 하여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하는 4대선행부문의 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

- 이것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2010년 신년사 구호에 나타난 경공업과 농업 우선의 경제운용 방향과 일치
- 경제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관리체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경제조직사업부문에서 과거의 틀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계획규률, 재정규률, 노동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의 준수를 기본원칙으로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제부문의 일군들이 “여러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활용할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상품공간’이나 ‘화폐공간’들의 영역에서 다소 혁신적 조치들이 시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 “올해의 총공세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비결은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임.
  - 특히 첨단돌파전의 기존전선으로 국방공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방공업에 대한 비중을 중요시 하는 기본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 첨단기술력의 획득을 위해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국방공업부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3. 사회·문화

-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상치료제, 무상의무교육제 등 사회주의적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사상교양사업 강화에 있어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 수령결사옹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민족적 자존심과 “세계의 선진수준을 따라 앞서려는” 각오,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 구현 강조
- 21세기의 안목, 1970년대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으로 당의 위대성과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것을 촉구함.
  - 기자, 언론인들에게 선군시대 대고조의 나팔수 역할 주문

### 4. 군사

- 예년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사상의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수령에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군대로 육성하고자 함.
  - ‘선군혁명의 전위 투사’, ‘수령 결사옹위’ 정신 강조
  -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확립’ 강조
-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대훈련에 집중할 것을 독려
  - 첨단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훈련을 실전에 맞게 실시

- 전투동원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역설함.
  -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를 강조
- 군민일치를 통해 군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함.
  - 주로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 하에 군민일치 중요성을 강조
  - 사상정신과 도덕, 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로서의 역할 강조

## 5. 대남

-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어느 해보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매우 유화적인 대남태도를 보임.
- “우리민족끼리” 등 상투적인 구호도 찾아 볼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며 남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찾아 볼 수 없음.
  -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쇼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통치를 쓸어버리겠다”고 한 바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일환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실현을 제시함.
  -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철폐되어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
- 동시에 남한에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연북투쟁의 고취를 촉구함.

## 6. 대외

-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라고 강조함.
- 전통적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아래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강조함.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외시장의 확대와 대외무역활동의 적극적 수행을 강조

### <'09년 및 '10년 주요 과업내용 비교>

분야	2009년	2010년
<b>정치 · 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조직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의 투쟁·창조 구현</li> <li>○ 사상사업 강화(일심단결 강조,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 배격 등)</li> <li>○ 수뇌부 결사옹위를 통한 군의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와 민간무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과 당조직들의 역할 강화, 사상교양사업 강화</li> <li>○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의도 구현 촉구</li> <li>○ 군민일치 강조, 군인건설 사업 강조</li> </ul>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역량집중 및 최우선적 보장</li> <li>○ 금속공업중심으로 선행부문의 연대적 혁신과 생산잠재력 총동원</li> <li>○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농업·수산업·경공업 부문 등의 결정적 전환 추진</li> <li>○ 경제관리에 있어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 강화</li> <li>○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자립 강화와 현대화 주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변영의 해로 구현</li> <li>○ 인민생활 향상은 김일성 유훈 관철을 위한 당의 정치적 사업</li> <li>○ 전체인민의 사회주의 혜택 향유를 위해 인민적 시책 철저히 구현</li> <li>○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힘있게 추진</li> <li>○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경제원칙 관철 및 사회주의경제 우월성 실현</li> </ul>
<b>대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10.4 선언'의 철저한 옹호·이행</li> <li>○ '우리 민족끼리' 이념 하에 승미사대주의 및 동족 적대의식 배격</li> <li>○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화해협력, △애국역량 단합 추진</li> <li>○ '자주·민주·통일' 구호 하에 '남조선 인민의' 반정부투쟁 선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입장 강조</li> <li>○ 화해도모, 내왕과 접촉을 통한 협력사업 추동</li> <li>○ 공리공영 장애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li> <li>○ 자유로운 통일논의 및 활동 보장</li> <li>○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 강조</li> </ul>
<b>대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및 동북아·세계의 평화·안전 수호</li> <li>○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 노선하에 △우호적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모색, △세계 자주화 위업 실현에 이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적대관계 종식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 보장</li> <li>○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및 비핵화 실현</li> <li>○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 노선 유지</li> </ul>

\* 출처: 통일부, "북한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 IV. 2010년도 부문별 전망

### 1. 정치

- 김정일의 업적 찬양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강화, 당 기능의 제고를 통한 정책의 침투력 강화, 군대와 사회억압기구를 동원한 사회통합의 유지라는 국내정치적 목표는 201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외부 위협을 선전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 등의 대외환경 변화와는 상관 없이 외부정보 유입 억제를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종래의 체제유지방법이 고수될 것임.
- 인민생활 향상을 총체적 목표로 제시했으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009년처럼 대중노력에 입각한 사회동원을 추구할 것임.

### 2. 경제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과 농업을 우선시 하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임.
  - 대내적으로는 경공업과 농업 증산을 위해 이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각종 원자재 우선 공급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기본 생필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대외경제협력 및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공식경제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의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경제정책의 기초 하에서 국가의 물자공급능력을 제고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국가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인다”라고 강조함으로써 경공업 생산공장들의 정상화를 위한 재원 투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물자의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노동력 및 생산 원자재 등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정책 추진 특성과 관련, 한편에서는 경제 전반(특히 시장 등 비공식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경제관리 관련 제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제도 개선을 위한 변화는 상품유통 및 화폐유통 부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 여기에 대외무역관리체계의 변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이를 김정은의 실적으로 선전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의 토대로 활용할 것임.
  
- 대외경제협력 및 무역활성화 도모의 일환으로 나선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북한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함으로써 대외경협을 새로운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3. 사회·문화

- 대외적 관계 개선에 수반되는 외부 사상·문화의 영향력 증대와 시장적 요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 및 문학·예술작품 보급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임.
- 경제난과 시장의 영향력 확산으로 유명무실화되었던 무상치료제, 무상 의무교육제 등 사회주의적 복지제도의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영향력 축소와 계획경제 질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할 것임.
- 후계자 구축작업은 사회문화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학·예술 작품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음.

### 4. 군사

- 2010년에도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국방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제3차 핵실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면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안보불안이 다소나마 누그러질 경우, 인민경제 향상이라는 2010년 과제 달성을 위해 경공업 및 농업 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

- 2009년 11월 10일 ‘서해교전’ 이후 이의 예방을 위해 인민군의 훈련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NLL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 북한이 우리 군을 향해 ‘보복공격’할 가능성 상존
- 주민들의 군부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인들의 대주민 봉사가 더욱 커지고 군민일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인민군대를 대규모 경제건설 역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
  -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장들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

## 5. 대남

-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전체적 논조와 남한당국에 대한 부정적 언사 부재에 미루어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큼.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요구는 지속될 수 있으나, 더 이상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물이 아님.
  -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사를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대가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 높음.
- 이에 따라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남북한 협력사업에서도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0·4선언에 포함된 경제협력사업의 조기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량, 비료, 경공업원자재 등의 지원 재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
- 이와 함께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정치공세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은 지속될 것임.

## 6. 대외

- “평화체제”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임.
- 보즈워스 방북의 모멘텀을 살려 힐러리 국무장관의 방북 등 고위급 정치회담을 추진하려고 할 것임.
  - 비확산과 핵실험 등을 카드화하여 미국을 압박하거나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임.
- 북한은 상반기 중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생필품 및 원자재의 공급이 원만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는 자체적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의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변국, 특히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시장의 확대와 대외무역활동의 적극적 수행의 차원에서 해외투자 자본 유치 노력의 확대와 무역활동의 활성화·다변화를 추진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V. 정책적 합의

-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의 대내외정책의 특징은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책의 보수화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식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경제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원마련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제한적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선군정치와 국방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김정일의 실적(?)을 기반으로 주민생활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체제에서의 경제발전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음.
-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북한의 국정목표도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이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과 물자 조달이 긴요한 바, 대남관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가능성이 있음.
  - 대남 관계개선,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긍정적 표현은 자립갱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난의 반영
  - 북미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남북경색은 곤란
- 따라서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관련 대화와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가 남북대화의 주도권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종래처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고 ‘존중’만을 언급한 바, 이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북측이 금강산 관광 관련 우리측의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을 수용하여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협 확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경우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북한이 핵문제의 의제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회피할 것으로 보임.
  
-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천명이 있어야 하며 대북지원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함.
  -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이 병행되어야 함.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이후 태도를 바꾸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한편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올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주년이 된다고 언급했음에 비추어 민족공조와 통일문제를 내세워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화폐 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해 북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가 강화되고, 주민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화폐개혁은 개인생산과 장마당 유통에 상당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소비품과 식량의 생산과 유통, 전반 경제활동을 저하시켰을 것이나,
  - 국영부문의 재생 여부가 의심되며 또는 속도가 느릴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제 위축 효과를 보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공급 부족의 심화로 극심한 인플레이가 예상되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중·평방·조선중앙TV, 09:00~09:37)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2010)년을 맞이한다.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혁명적대고조의 진두에 서시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무한대한 정력과 불면불휴의 령도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으며 불타는 충정과 영웅적 위훈으로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해 주체98(2009)년은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이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천리마의 고향

강산땅에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150일 전투, 100일전투를 벌릴 것을 발기하시고 그 승리를 위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이 땅 위에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 원천이었다.

승고한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온 한 해 동안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로 초강도의 강행군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공격정신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 도처에서 세상을 들었다 놓는 기적들이 창조되게 하였다. 제국주의의 반공화국제 재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민족의 존엄이 높이 떨쳐진 것은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한 자주적 신념과 의지, 드센 배짱과 정력적인 혁명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해의 투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장군님을 따르면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더욱 뚜렷이 새겨주었다.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우리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력사적 사변이었다.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 완성의 만세소리가 터져오르고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한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대승리이며 우리의 무궁무진한 경제기술적잠재력을 시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경사이다. 뜻깊은 태양절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리상과 포부가 얼마나 원대하며 위대한 당의 향

도따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미래가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당의 령도 밑에 전인민적인 총결사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나라의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는 우리의 대고조력사에 가장 빛나는 한페이지를 아로새긴 잊을 수 없는 전투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영웅적 투쟁을 벌린 150일 전투, 100일 전투의 전 과정은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는 우리 혼연일체의 위력이 폭발할 때 어떤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전반적인 공업부문이 활성화되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고 녕원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되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었다. 지난해에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수많은 협동농장들이 강성대국 리상촌으로 전변되었으며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되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선군시대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영화와 가극, 연극, 음악부문에서 명작들이 련이어 창작형상되었다. 대고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들이 창조되어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 기백으로 끓어번졌다.

김일성종합대학과 원산농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체육 경기성과들이 마련되었다.

지난해에 이룩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 조국이 비약의 룡마를 타고 무섭게 솟구치고 있으며 바야흐로 강성대국선포의 승전고가 울려퍼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대담한 작전과 백두의 공격 정신, 무한대한 정력과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으로 2009년을 우리 당과 혁명,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다.

새해 주체99(2010)년은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 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에게 값높은 삶과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당창건 65돐은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민족적 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끝없이 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위대한 향도의 당을 위해 가슴마다에 꿰어번지는 충정의 열도를 최대로 분출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 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

당의 령도따라 세기를 주름잡는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대고조진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거세찬 대고조의 불길 속에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이 경제강국의 령마루에도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 당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전례없이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오늘의 대고조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례지게 함으로써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다.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고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다.

우리 당이 준엄한 시련 속에서 오늘을 내다보고 하나하나 마련해온 우리 경공업과 농업의 토대는 대단하다. 우리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 기지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대 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새해 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선군시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었다.

여기에는 금속공업을 비롯한 4대선행 부문이 대고조의 진군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가 될 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깃들어있다. 4대선행 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 양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강재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늘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희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높은 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 절대시하고 모든 혜택을 인민들에게 돌리는데 우리 사회주의의 본태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가 력사적으로 실시하여온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 시책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미치게 하여야 한다.

만수대거리 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의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상품류통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의 총공세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비결은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데 있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기술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다. 첨단을 돌파하는 여기에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분야를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며 모든 것이 흥하고 유족한 사회

주의라원을 일떠세우는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자!》는 구호를 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첨단돌파전의 기본전선인 국방공업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울려나오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첨단돌파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전략을 바로 세우고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 기초과학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첨단돌파의 전초병,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도처에서 첨단을 돌파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오늘의 벽찬 현실은 경제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는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전투지휘, 이것이 대고조시대 경제일군들이 지녀야 할 일본새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계획규률, 재정규률, 노동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경제관리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활용할줄 알아야 한다.

올해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정신력을 기본무기로 하여 전진하는 불패의 위업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사상의 힘, 정신의 위력을 틀어쥐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대중의 사상정신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의한 의지와 공격정신에 바탕을 두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 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영웅적 위훈과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할 우리에게 민족적자존심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담대한 기상, 조선사람은 그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배짱, 세계의 선진수준을 따라 앞서고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쥐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애국의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넘쳐야 한다. 우리의 위성이 우주를 나는 첨단의 시대를 개척한 존엄있는 강국의 인민답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21세기의 혁신적 안목과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우리 당의 위대성과 새로운 대고조시대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양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폭풍치며 내달리는 총진군대오를 고무 추동하는 선군시대 대고조의 제1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올해에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점령하자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이다.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선군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사상과 의지도, 기질과 배짱도, 감정과 정서도 하나인 혼연일체의 정예부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모든 장병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수령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결사대로 키워야 한다.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정치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군인기질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전군의 혁명화를 다그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당이 제시한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을 틀어쥐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첨단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강도높이 벌려 지휘관들은 기묘한 지략과 령군술, 드센 배짱과 담력을 소유한 만능의 지휘관으로, 병사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맹한 싸움군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전군이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 최정예화된 혁명강군의 면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순간의 안일해이도 없이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적인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 수 있게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장들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사상정신과 도덕, 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들인 로동계급과 청년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로동계급은 위대한 대고조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선봉대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둥이다. 우리 당은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로동계급의 높은 혁명성과 강의성을 믿고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미래를 설계하고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150일 전투, 100일 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자기 령도자를 실천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고결한 애국충정과 제힘을 믿고 우리 식으로 창조하며 투쟁해나가는 투철한 주체의 신념,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는 대중적 영웅주의가 우리 로동계급이 지켜서있는 초소마다에서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인 청년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움길 불타는 열정을 안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용솨음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어나가는 청년영웅, 첨단을 돌파하고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유능한 청년인재가 되어야 한다.

올해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 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당 창건 65돛이 되는 올해에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 우리 당의 전투적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

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모든 당 사업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지향시켜야 한다.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켜나가는 송풍기가 되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전투장들에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한다.

들끓는 현실 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 온 사회에 드높은 혁명적분위기가 짝 차 넘치도록 하며 누구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 소탈한 품성과 고상한 인정미를 지니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망있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모든 면에서 군중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은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어디서나 대고조의 북소리를 남먼저 울리고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는 능숙한 정치활동가, 용맹한 돌격투사가 되어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돛이 되는 해이다.

2000년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열리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여온 지난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조치는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내외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은 악랄하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꺾을 수 없으며 통일애국세력이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과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은 철폐되어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돛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돛을 맞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경사스러운 10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를 장엄한 축포성은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맹세의 축포성으로, 전체 인민이 참된 사회주의 복을 누리는 환희의 축포성으로 온 누리를 진감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㉞**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  
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  
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  
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  
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  
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  
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0-01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901-2525, 팩스 : 901-2544
인쇄처	도서출판 늘봄 전화 : 070-7090-1177
인쇄일	2010년 1월
발행일	2010년 1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